



태극기 휘날리며 12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광주U대회 리듬체조 개인종합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손연재가 태극기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 종합우승 보인다

금메달 41개 획득... 오늘 4개 추가하면 러시아·중국 남은종목 모두 1위해도 우승

대한민국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에서 사실상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의 종합우승은 메이저 국제스포츠대회 사상 처음이다. <관련기사 2·3·4·5·8·10·14면> 대회 폐막을 앞둔 12일 한국은 금메달 41개, 은메달 27개, 동메달 25개 등 총 93개의 메달을 수확해 종합 1위를 고수했다. 이는 역대 U대회 사상 한국 최다 금메달로, 당초 목표했던 25개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한국은 대회 초반인 6일 유도와 사격, 펜싱 등에서 금메달 10개를 획득, 각각 8개를 수확한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초반 기세를 잡은 한국은 이후 전통적인 효자종목인 양궁과 태권도에서 무더기 메달을 수확하며 줄곧 1위를 지켰다.

앞으로 남은 금메달 수는 17개. 이 중 4개만 추가하면 한국은 종합 1위를 확정짓는다. 2·3위인 러시아·중국과 금메달 수가 10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국이 4개를 추가하면 금메달 45개이고, 나머지 13개를 러시아 또는 중국이 모두 가져간다고 해도 44개로 1개 앞서는 것이다. 종합우승의 기대는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의 무결점 연기가 높였다. 13일 손연재는 금메달 6개 중 단체전을 제외하고 볼·후프·곤봉·리본 4개 종목에서 '금빛 리듬'을 연기한다. 구기종목도 상승세다. 남자축구는 오후 7시 나주공설운동장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1991년 영국 셰필드 대회 이후 24년 만에 유니버시아드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은 유니버시아드 남자 축구에서 1991년 우승했으며 1993년,

■ 광주U대회 메달 순위 (12일 20시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대한민국	41	27	26
2	러시아	31	35	43
3	중국	31	18	15
4	일본	24	22	34
5	미국	18	15	17
6	프랑스	12	9	8
7	이탈리아	10	14	17
8	이란	7	2	6
9	우크라이나	6	14	5
10	카자흐스탄	6	0	4

1995년, 1997년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유니버시아드 사상 처음 열리는 핸드볼에서는 한국 여자 대표팀이 러시아를 상대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탁구 남녀단식과 태권도 겨루기 단체전 금메달의 주인공 역시 이날 정해진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요정 손연재



5관왕 꿈꾼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무결점 연기를 펼쳐 한국 리듬체조 U대회 최초로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했다. 손연재는 12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광주U대회 리듬체조 개인종합 둘째날 리본에서 18.050점, 곤봉에서 18.350점을 받았다. 전날 볼(18.150점)과 후프(18.000점) 점수를 더한 합계 72.550점을 기록, 우승을 차지했다.

인전 아시안게임에 이어 U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손연재가 처음이다. 손연재는 전날 볼 1위, 후프 1위에 이어 이날 리본과 곤봉까지 1위에 올라 전 종목에서 결승에 진출했다. 손연재는 13일 금메달 4개가 걸린 종목별 결승 경기에 나서 5관왕을 노린다. 2위는 71.750점을 획득한 우크라이나의 간나 리자트디노바, 3위는 70.800

점의 벨라루스 스타누타(벨라루스)가 차지했다. 세계 랭킹 1위인 마르가리타 마룬, 3위인 아나 쿠드랴체나(이상 러시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우려로 불참하긴 했지만 손연재는 동유럽 강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승을 차지하며, 오는 9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올해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자신감을 쌓았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전남 3명 16일·광주 6명 18일 격리해제

메르스, 종결 수순 돌입하나

빠르면 8월 2일 종식 선언

지난 5월 20일 첫 환자 확인으로 시작된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언제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이 중단된 날로부터 28일(4주)이 지난 시점을 '종식 공식 선언일'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은 메

르스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다. 이 경우 마지막으로 환자가 발생한 지난 4일을 기점으로 4주가 지난 8월 2일이 종식 선언 시점이 된다. 물론 환자가 또 발생한다면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 메르스 정정지역으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만이 아니라 전남도 역시 오는 16일이면 메르스 격리자가 '0'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12일 현재 전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메르스 접촉자는 3명으로, 이들 가운데 1명은 주소지만 전남에

있을뿐 타시도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다. 나머지 2명은 오는 15일과 16일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다. 전북 지역 관리대상자 2명(격리 1명·능동감시 1명)은 13일에, 광주 6명(전원 격리)은 오는 18일 차례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현재 전국 메르스 확진자는 186명으로, 이 중 20명(10.7%)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130명(69.9%)은 퇴원, 36명(19.3%)은 사망했다. /윤현석기자 chadod@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삼성물산 주주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오는 7월 17일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합병을 통해 바이오 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엇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미래가 방해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주주님들의 주식 단 한 주라도 저희에게 위임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뵙고 위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합병을 통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결권 위임 관련 안내 www.newsamsungcnt.com/entrust.html

대표전화 02) 2145-2000

삼성물산주식회사